點吐釋讀口訣 資料의 否定法* **

李 勇***

要約

본고에서는 자토석독구결의 부정법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점토석독구결의 부정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토구결에서 보이는 동사문 부정의 단형부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빼고는 대체로 자토와 점토의 부정문 실현 방식이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잘못 보았던 것에 대해 반성하고 석독구결의 부정법을 새로이 인식하는 기회를 가졌다. 첫째, 능력부정의 예로서는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ㄱ 不多'의 경우에는 '-尸'로 적혀야 할 것이 '-ㄱ'으로 적혔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둘째, 화엄경 계통 자료에 나타나는 능력부정에 대해 다른 파악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용(2003가)에서는 '不能ㅣ矣'로 파악하였으나 본고에서는 22(-)를 고려하여 '不〈ノ〉能ㅣ矣'로 파악하였다. 셋째, 이용(2003가)에

* 이 글은 양재원에서 계속해 진행되고 있는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 아마도 이 모임이 없었다면 이마저의 글도 쓰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이 글의 집필에 도움을 주었던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그러나 이 글에서 생기는 오착은 모두 필자의 것임을 명백히 밝혀둔다.

** 본고는 이용(2003가)과 연속선상에 있는 글이다. 따라서 이용(2003가)이 이 글을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과 더불어 참고할 만한 글이 이용(2010)이다. 이용(2010)에서는 이용(2003가)과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을 유형론적 시각에서 풀어보려고 한 글이다.

*** 슬로베니아 류블랴나대학교 인문학부 아시아아프리카학과

서 예외적인 것으로 보고 언급만 했던 '동사+-ㅁㄱ 不矣'의 구성에서 '-ㄱ'이 명사화소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석독구결, 자토석독구결, 점토석독구결, 부정법, 不多, 不矣, 不ㅅ

1. 序論

이 글은 그동안 이루어졌던 자토석독구결 자료에 대한 이해와 점토석독구결에 대한 해독[1]을 바탕으로 점토석독구결의 부정문을 정리하고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2]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자토석독구결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 잘못 보았던 것이나 연구 당시의 한계로 인하여 명확히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도 이루어진다.

한편 이제까지 점토구결에 대한 연구가 자토의 연구에 의존적인 관계였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인식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점토구결과 자토구결은 상호의존적이면서 점토구결 역시도 국어사 자료로서 충분히 이용 가치

1) 이 글에서 사용하게 될 '화엄경' 계통과 '유가사지론' 계통의 점토석독구결 자료의 데이터는 각필구결 연구 모임에서 공동 작성한 잠정 판독문에서 추출한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공동으로 판독문을 작성하고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그리고 데이터 추출의 과정에서 생긴 오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필자에게 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

2) 이 글에서 다루게 될 점토석독구결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晋本華嚴經〉〉 권20 〈성암고서박물관〉, 〈〈瑜伽師地論〉〉 권5, 권8: 〈성암고서박물관〉, 〈〈周本華嚴經〉〉 권6, 권22, 권36, 권57 〈성암고서박물관〉, 권31, 34 〈호림박물관〉.

가 있는 자료라는 것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동안 점토석독구결 자료가 국어사 자료로서 유용한지의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사실은 환기할 만하다. 본고의 논의가 이러한 논란에 대한 답변의 성격을 조금이나마 띨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점토석독구결의 부정문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자토석독구결의 부정문 연구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국어사에서 부정문을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점토석독구결은 더 이상 자토석독구결에 의해 해독되기만 하는 수동적인 자료가 아니라 국어사 연구를 위한 능동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2장에서는 자토석독구결의 부정법을 정리하게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점토석독구결의 부정법을 다루게 된다. 4장에서는 2, 3장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점토석독구결이 가진 의의를 살펴보게 된다.

2. 자토석독구결의 부정법

자토석독구결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는 이용(2003가)에 정리되어 있다. 이용(2003가)에서는 남풍현(1976)에서 밝힌 바 있는 명사문 부정과 용언문 부정의 분류에서 더 나아가 용언문 부정을 동사문 부정으로 고치고 동사문 부정을 다시 단순부정과 능력부정으로 분류하였다. 용언문 부정을 동사문 부정으로 고친 것은 형용사는 명사문 부정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다.[3)]

3) 여기서 동사문 부정, 명사문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서술어를 중심으로 구분한 것이다. 명사문은 서술어가 '명사-이다'인 것을, 동사문은 서술어가 '동사'인 것을 이른다. 즉 동사문 부정은 서술어가 '동사'인 문장을, 명사문 부정은 서술어가 '명사-이다'인 문장을 부정하는 것을 말

그런데 이용(2003가)에서는 자료와 이해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놓쳤다. 다음에 논의할 것들은 이용(2003가)에서 놓쳤던 것들에 대한 반성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이용(2003가)의 정리 결과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4)]

(1) 명사문 부정 형식(=단순부정):
명사(구)+不矣(非矣/未矣), 非ㅣ矣
형용사+-ㄱ +不矣(非矣/未矣)

동사문 부정 형식:
단형부정: 단순부정 不多+동사, 형용사
장형부정: 단순부정 동사+-尸+不多(非多), 동사+-ㄱ +不ㅅ
능력부정 동사+-尸+不ㅅ(未ㅅ), 未ㅣ, 不能ㅣ矣

위의 정리 결과에 더하여 자토석독구결 부정법의 특성으로 두 가지를 덧붙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이들 자료가 유가사지론 계통(『유가사지론』, 『구역인왕경』, 『합부금광명경』)이냐 화엄경 계통(『화엄경』, 『화엄경소』)이냐에 따라 갈린다는 것이다. 둘째는 단형부정은 화엄경 계통에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단형부정이 화엄경 계통에만 나타나는 것은 자료적 특성의 문제이지 부정법의 본질적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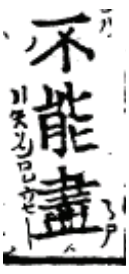
한편 자토구결 자료의 부정문에서는 형용사 부정이 명사문 부정의 형식을 취한다는 사실은 국어의 형용사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문제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명사나 동사에 비하여 형용사는 유동적이어서 개

한다. 그러므로 형용사문 부정은 서술어가 '형용사'인 문장을 이르게 된다.

4) 이곳에서 정리하게 되는 '不矣/非矣/未矣'(안디), '不多/非多'(안들), '不ㅅ/未ㅅ'(안득) 등의 독음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남풍현(1976)에서 정리된 것을 따르기 때문이다.

별어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명사에 가깝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사에 가깝기도 하다. 그런데 동사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한국어의 형용사가 명사와 가까운 특성을 보이는 예가 있다는 사실은 한국어의 유형론적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용(2003가)에서는 능력부정이 유가사지론 계통의 경우에는 不ㅅ(未ㅅ)로 나타나는 반면에 화엄경 계통의 경우에는 不能ㅣ矣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이후에 드러난 사실들을 참고하면 화엄경 계통의 자료에 나타난 능력부정을 '不能ㅣ矣'만으로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그림 1〉을 보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그림 1

〈그림 1〉(화엄경09:07)에서 보면 不의 좌측 상단 쯤에는 'ノ'로 표기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구결자인지에 대해 확신을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자토구결의 화엄경 계통 자료에는 이처럼 不의 좌측에 구결자인지 아닌지 확신을 하기 어려운 예가 8회 출현한다는 사실이다. 한편 화엄경 계통의 '不能' 구문에서 '不'에 'ノ'처럼 보이는 이 부호가 달리지 않은 예는 한 번밖에 없다는 사실도 덧붙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ノ'처럼 보이는 부호는 〈그림 1〉에서 보면 좌측토라고 보기에는 不에 너무 많이 붙어 있다. 이것은 다른 데이터들도 그 사정이 같다. 따라서 이들을 구결토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눈에 관찰되는 것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관찰에 대한 인식을 위하여 앞으로는 이 부호를 편의상 〈ノ〉로 표시하기로 한다. 그리고 화엄경 계통의 능력부정에 대해서는 '-尸 不能ㅣ矣'가 아니라 '-尸 不〈ノ〉能ㅣ矣'로 표시하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동사문 부정 형식과 관련하여 풀리지 않는 문제 중 하나가 '동사+-ㄱ+不ㅅ'의 존재였다. 이용(2003가)에서는 이것을 단순부정으로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엉거주춤한 처리 방식이었다. 다른 '不ㅅ'은 능

력부정에 쓰이는데, '-ㄱ'과 같이 쓰인 예만이 단순부정이 되는 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合部金光明經』에서 발견된 점토구결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토구결에 피부정어가 동사인 것처럼 보이는데도 명사문 부정을 취하는 예들이 발견되는데 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넘어갔다. 이들은 동사가 '-ᄒᆞ{可}ᄂᆞᆫ' 또는 '-ㅁㄱ'와 결합하고 있다. 동사가 명사문 부정을 취하고 있는 예는 동사는 동사문 부정 형식을 취한다는 일반화를 해치게 되므로, 이들 예에 대해 따로 설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형부정과 관련된 관찰적 사실 중의 하나는 일반적으로 피부정사가 동사일 경우 'ᄂᆞ'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捨離ᄇᆞᆯ〈화엄02:12-17〉, 自在ᄇᆞᆯ〈화엄03:09〉 등의 2자어 동사도 'ᄂᆞ'가 드러나지 않는다.[5]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음독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처리해 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ᄂᆞ'가 쓰였으면 음독을 하고 'ᄂᆞ'가 쓰이지 않았으면 훈독을 했을 것이라는 인식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위의 사실들에 대한 관찰과 이에 따른 반성은 앞으로의 논의에 유용한 역할을 하게 된다. 때로는 이러한 관찰과 반성이 점토석독구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논의를 좀더 치밀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할 것이다.

---

5) 자토구결의 현토 양상 중 특징적인 것의 하나로 파생접사 'ᄂᆞ'와 결합하여 이루어진 동사의 경우에 이것이 1음절어인 경우에는 'ᄂᆞ'가 잘 현토되고 2음절어인 경우에는 'ᄂᆞ'가 잘 현토되지 않는 것을 들 수가 있다. 기존에는 1음절어의 경우에는 음독을 하므로 'ᄂᆞ'가 결합하고 2음절어의 경우에는 훈독을 하므로 'ᄂᆞ'가 붙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져왔다. 그러나 부정법의 현토 양상을 보면 이렇게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같은 동사가 부정법과 같이 쓰일 때는 훈독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음독을 한다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음절어일 때는 음독하고 2음절어일 때는 훈독한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렵다.

3. 점토석독구결의 부정문

3.1. 명사문 부정

먼저『유가사지론』점토구결의 명사문 부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A: 有燒惱[22~23(・),51(・)]者[23~33(/)]謂由此樂[33(・)]性[22~32(・)] 不眞實[33(/),25(・),33~43(・)]如疥癩病[11(・),45(/),22(・)]虛妄顚倒[23(・)]所依處[33~43(・)]故[43(・),55(・)] 〈유가 권5 03:16-17〉

B: 燒惱 {有}ㅐㅣ {者}ㄴㄱㅅㄱ 謂 此 樂ㄱ 性ㅣ 眞實ㄴㄱ 不矣ㅣㄱ 疥癩病 {如}支ㄴㄱㅅㄹ 由ㅋ 虛妄顚倒ㄹ 所依處ㅣㄱ{故}ㅁㅎ//燒惱가 있다 함은 즉 이 즐거움은 성품이 진실하지 않은데 疥癩病 같은 것을 말미암아 虛妄顚倒의 의지하는 곳인 때문이며,

(3) A: 聖財所生樂[33(・)]无能[25(・)]侵奪[24(/),=55(・)] 〈유가05 03:06-07〉

B: 聖財所生樂ㄱ 能矣 侵奪ㄴㅎ 无ㅎ//聖財所生樂은 능히 侵奪할 이가 없으며

(2)에서 보면, 점토구결의 주요 해독 원칙 중 하나인 구절말 현토 원칙에 따라 자토구결이라면 '不'에 달려 있을 토가 '實'에 달려 있다. '實'에는 세 개의 토가 달려 있다. 이 중 33(/)과 33~43(・)은 각각 'ㄴㄱ'과 'ㅣㄱ'에 대응된다.[6] 그렇다면 25(・)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자토구결과의 대응을 통해 얻을 수 있다.『유가사지론』자토

6) 이에 대해서는 장경준(2005), 서민욱(2005)를 참조할 수 있다. 두 논문에는『유가사지론』점토구결에 대한 연구 성과가 집약되어 있다.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토구결과 관련하여 이들 논문에 기댈 수 있는 것들은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구결에서는 '能ᄉᆞ'가 나타나지 않지만, 『구역인왕경』, 『화엄경』, 『금광명경』에는 '能ᄉᆞ'가 나타나므로 25(·)을 'ᄉᆞ'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7] (3)은 자토구결과 대응을 통해 '能ᄉᆞ'를 재구해 낼 수 있는 예이다. 따라서 (2)의 '實'에 달린 점토를 세 개의 자토와 대응시킬 수 있게 된다. 'ᄂᆞᆫ', 'ᄆᆞᆯ', 'ᄉᆞ'가 그것이다.

그런데 위의 (2)에 나온 점토를 자토에 대응시켜 해독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이를 살펴보면 먼저 서민욱(2005: 82-84)에서는 'ᄉᆞ'를 의존명사 'ᄃᆞ'와 주격조사 '이'의 결합으로 보고 부정의 'ᄉᆞ'는 보충하여 '不(ᄉᆞ)ᄆᆞᆯ ᄉᆞ'인 것으로 처리하였다. 반면에 장경준(2005: 178-181)에서는 '不ᄉᆞ'의 일부인 'ᄉᆞ'로 보아 '不ᄉᆞᄆᆞᆯ'으로 처리하였다. 두 견해 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면이 있다. 그런데 문맥과 석독구결의 문법을 고려하면 장경준(2005)이 더 합리적이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不ᄉᆞᄆᆞᆯ'은 현대어로는 '않은데' 정도로 옮기는 것이 좋다.

이제부터 '不ᄉᆞᄆᆞᆯ'를 '않은데' 정도로 옮기는 것이 좋은 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관련 부분을 폭넓게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A {有}ᄀᆞᆫ {者}ᄂᆞᆫ ᄉᆞᆫᄃᆞ 謂 · · · B ᄅᆞᆯ 所依處ᄆᆞᆯ {故}ᄆᆞᆫᄃᆞ"의 구문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문맥에 따라 풀어보면 'A가 있는 곳이라 하는 것은 즉 · · · (그곳이) B가 의지하는 곳이기 때문이며' 정도가 된다.[8] 따라서 (2)를 반복되는 구문에 따라 정리하면 "燒惱 {有}ᄀᆞᆫ {者}ᄂᆞᆫ ᄉᆞᆫᄃᆞ 謂 · · · 虛妄顚倒ᄅᆞᆯ 所依處ᄆᆞᆯ {故}ᄆᆞᆫᄃᆞ"가 된다. 그리고 이를 현

7) 25(·)에 대해서 장경준(2005)에서는 8개가 25(·)로 판독된 것으로 보았고, 서민욱(2005)에서는 3개가 판독된 것으로 보았다. 이는 15~25(·)의 판독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서민욱(2005)에서는 25(·)로 판독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ᄉᆞ'로 파악하였지만, 장경준(2005)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8) 여기에서는 많이 풀어서 해석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을 택한 것은 논의와 설명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대어로는 “燒惱가 있는 곳이라 하는 것은 즉 · · · (그곳이) 虛妄顚倒가 의지하는 곳이기 때문이며” 정도로 옮길 수 있다. 그럼 이제 문제는 ‘· · ·’에 해당하는 ‘此 樂ㄱ 性ㅣ 眞實ㅅㄱ 不矣ㅣㄱ 疥癩病 {如}ᄃᆞᆫㄱㅅㄹ 由ᄒᆞ’가 될 것이다. 먼저 이것은 ‘疥癩病 {如}ᄃᆞᆫㄱㅅㄹ 由ᄒᆞ’를 ‘Bᄅᆞ 所依處ㅣㄱ {故}ᄆᆞᄋᆞᆷ’의 이유나 원인의 절로 파악할 때 설명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되면 ‘此 樂ㄱ 性ㅣ 眞實ㅅㄱ 不矣ㅣㄱ’ 역시도 접속절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이것을 접속절로 처리하지 않고 서민욱(2005)처럼 주어절로 처리하게 되면 이 주어절이 ‘虛妄顚倒ᄅᆞ 所依處ㅣ-’의 주어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의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9] 여기서 설명이 이루어질 대상은 ‘번뇌가 있는 곳’이지 ‘樂의 性’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처럼 해 놓고 보면 ‘不矣ㅣㄱ’과 ‘不(矣)ㅣㄱ矣’ 중에서는 전자를 택할 수밖에 없다. 석독구결에서 ‘-ㅣㄱ’이 연결어미의 기능을 하는 예는 있어도 ‘-ㅣㄱ矣’가 연결어미처럼 기능을 하는 예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장경준(2005)의 견해를 받아들여 ‘不矣ㅣㄱ’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예문을 형용사 부정이 명사문 부정 형식을 취하는 예로 파악하기로 한다.

(4) A: 非彼諸天=33(·)]唯受用他[23(·)]所化[33(₩),42(·)]欲塵[34(·),24(·)?,15~24(/)?,25(·)]亦有受用自[23(·)]所化[33(₩),42(·)]欲塵[34(·),15~24(/),14(·)?,51(·)]{24(₩)?}者是[34(·)]名[54(·)]第三欲生[53(·),+51(·.)] 〈유가05 08:03-05〉

B: 彼 諸天ㄱ 唯 他ᄅᆞ 化ㄴㄱ 所ㄴᆫ 欲塵ㄹᆞᆯ 受用ㅅᄉᆞᆫ 非矣 亦 自ᄅᆞ 化ㄴㄱ 所ㄴᆫ 欲塵ㄹ 受用ㅅᄉᆞᆫ刀 有ㅣ{者} 是ㄹ 名ᄒᆞ 第

9) 이와 관련하여 동국대 역경원의 해석을 참조하면, “타듯한 괴로움이 있다 함은 이 즐거움의 성품이 진실이 아닌지라 마치 옴 또는 나병 같은 병과 허망함과 뒤바뀜이 의지하여지는 데요”로 되어 있다.

三欲生ㅗx ㅣ//그 諸天은 오직 남이 변화시킨 바 欲塵만을 受用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자기가 化한 바 欲塵을 受用함도 있다. 이것을 일컬어 第三欲生이라고 한다.

자토구결에서 '非矣'도 명사문 부정에 쓰인다. 이와 관련하여 (4)를 보면 점토구결에서도 '非'가 '矣'를 취하여 명사문 부정에 쓰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명사문 부정의 예가 (2)만으로 부족하다면 (4)의 예로 보충할 수 있으리라 본다. (3)과 마찬가지로 (4)에서는 피부정어에 '亽'가 오고 있다. '亽'는 동명사어미 '-ㅭ'과 의존명사 '이'의 결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명사문 부정으로 파악하는 데 문제가 없다.

(5) 가. A: 又誹謗流轉[34(・),15~25(/),51(・)]者[23~33(・・)]應知[42(₩),51(・)]謗因[34(・),+53(/)]不[역독선]謗[역독선]自相[34(・),15~24(/),33~43(・),+11(・)] 〈유가08 18:02〉

B: 又 流轉乙 誹謗ㅅx矣ㅣ{者}x入ㄱ 知ノ亦{應}七ㅣ 因乙 謗 xㅗ 自相乙 謗ㅅ亽 不(矣)卽丁//또 流轉을 誹謗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알아야 한다, 因을 謗하는 것이지 自相을 謗하는 것이 아닌 줄을.

나. A: 又非聖財所生樂[33(・)]非[역독선]一切時[53(・),44(・)]有[15~24(/),51(・)]以依[역독선]外緣[34(・),=45(/),24(・)?,43(・)]故[53(・)] 〈유가05 02:19-20〉

B: 又 非聖財所生樂ㄱ 一切 時ㅗ十 有ㅅ亽 非(矣)ㅣ 外緣乙 依x入乙 {以}ㅋ(ㄱ)ㅁ{故}ㅗ//또 非聖財所生樂은 일체의 때에 있는 것이 아니다. 外緣을 의지함을 말미암은 까닭이다.

다. A: 聖慧命者[33(・)]受用正法[34(・),15~25(-),33(・),경계선]則[21(・)]不如是[33(/),55(・)] 〈유가05 04:09-04:11〉

B: 聖慧命者ㄱ 正法乙 受用(ㅅ)尸ㄱ 則ㄉ 是 如ㅅㄱ 不(矣)ㄉ//이것은 捨處에 隨順하여 无簡擇捨의 따르는 바인

때문이고, 聖慧命者는 正法을 受用하는 것은 곧 이와 같지 않으며

(5)의 예들은 명사문 부정 형식이 쓰여야 할 구문에서 자토구결의 '矣'에 대응되는 25(·)가 생략되어 쓰인 것들이다. 『유가사지론』 점토구결에서는 이처럼 25(·)가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5가)와 (5나)에서는 피부정어가 명사구를 이루고 있다. (5다)는 형용사에 '-ㄱ'이 붙은 뒤에 부정된 예이다. (5가)와 (5나)는 각각 '不'과 '非'가 한문 원문에서 부정어로 쓰인 예이다.

(6) A: 又非聖財所生樂[33(·)]不可從今世[34(·),42(·)]持[=15(·)]徃後[33~43(·),34(·)]世[44(·),42(\),33(/),지시선(/)]聖財所生樂[33(·)]可從今世[34(·),42(·)]持[=15(·)]徃後世[44(·),42(₩),55(·)] 〈유가05 03:07-09〉

B: 又 非聖財所生樂ㄱ 今世乙 從七 持口 後世十 徃ノ方{可}七ン ㄱ 不(矣)ㅣㄱ乙 聖財所生樂ㄱ 今世乙 從七 持口 後世十 徃ノ方{可}七(ン)分//또 非聖財所生樂은 今世로부터 지니고 後世에 갈 수 없는 것이거늘 聖財所生樂은 今世로부터 지니고 後世에 갈 수 있으며

(6)은 ノ方{可}七(ン)-의 예이다. 동사 '徃'이 앞에 있지만 '-方{可}七ン-'가 붙으면서 이 구결연결체의 전체적인 성격이 형용사가 되어 명사문 부정을 취하고 있다. 이 점이 33(\)을 통해 잘 드러난다. 33(\)은 '-ㄱ'을 포함한다. 이러한 현상은 자토석독구결에서도 관찰된다. 『유가사지론』 점토구결의 일반적인 경향에 따라 '矣'로 볼 만한 것이 현토되지 않았으나 자토석독구결이나 점토석독구결의 부정법 양상을 고려했을 때, '矣'의 현토가 생략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것이 『유가사지론』 점토구결에 나타나는 명사문 부정의 대체적인

양상이다. 다음에서는『화엄경』계통의 점토구결에 나타나는 명사문 부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7) A: 佛子[34(ㅣ)]如日月星宿[25(·)]宮殿[11(·)]光明[11(·),13(/),33(·)] 風力[23(-)]所持[12(·),21(·ㅣ)]不可沮壞[23(ㅣ),24(₩),25(·),35(·),45(-),51(·)]〈주본화엄36, 12:12-13〉

B: 佛子ᄀᆞ 日月星宿ᄂᆞᆫ 宮殿ᄋᆡ 光明ᄋᆡᄂᆞᆫᄉᆞᆫᄀᆡ 風力ᄅᆞᆯ 持ᄀᆡ 所X 沮壞(ᄂᆞᆫ)ᄒᆞᆷ(ᄒᆞᆷ){可}ᄂᆞᆫ(ᄂᆞᆫᄀᆡ) 不矣X分//불자여, 日月星宿의 궁전이니 광명이니 하는 것은 風力의 유지한 바이라서 沮壞할 수 없으며

(8) A: 義身[35(/)]不違法身[53(:),25(·),22(·)]〈진본화엄20, 14:17〉

B: 義身ᄀᆡ 法身ᄀᆞᄒᆞ 違ᄂᆞᆫ 不(ᄂᆞᆫ)ᄒᆞ//義身이 法身에 거스르지 않고

(7)에서 부정의 '不'은 이른바 당위 또는 가능의 구문에 쓰이는 '可'와 연관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앞에서 '可'의 경우에 자토구결에서는 '-ᄒᆞ{可}ᄂᆞᆫᄉᆞᆫ-'와 관련하여 앞에 동사가 있어도 뒤에 '-ᄒᆞ{可}ᄂᆞᆫᄉᆞᆫ-'가 오면 형용사가 되어 명사문 부정의 '不矣'를 취하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10] 이와 관련된 현상은 화엄경 계통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난다. '沮壞'가 동사이지만 뒤에 '-(ᄒᆞ){可}ᄂᆞᆫ(ᄂᆞᆫ)-'가 온 뒤에 '不矣'가 붙어서 명사문 부정 형식을 취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8)은 진본화엄경에 나오는 예이다.

(9) A: 所謂深信手[55(.·)]於佛[35(·)]所說[12(ㅣ),53(·)]一向忍可[23(ㅣ)]究[25(-)]竟[23(₩)]受持故〈주본화엄57, 10:05-06〉

---

10) '-ᄒᆞ{可}ᄂᆞᆫᄉᆞᆫ-'가 오면 동사 부정을 이루지 않고 형용사 부정을 이룬다는 사실은 주의를 요한다. 이용(2010)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ᄒᆞ{可}ᄂᆞᆫᄉᆞᆫ-'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이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자리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기가 쉽지 않고 중복되기도 하여 줄이기로 한다.

B: 謂(ᄂᆞᆨ) 所(ᄀᆞ) 深信手(ㅣ)ᄂᆞᆫ {於}佛矣 說ᄒᆞᆫᄀᆞ 所十 一向忍可ᄂᆞᆯᄉᆞ 究竟ᄒᆞᆷ 受持(ᄂᆞᆯ入ᄆᆞ){故}(ᄉᆞ)//深信手이다. 부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 한결같이 忍可하여 끝까지 受持하는 까닭이다.

(10) 가: 其 心ᄉᆞᆷ 謙下ᄂᆞᆯᄉᆞᄒᆞ 佛矣 善根乙 長ᄂᆞᆫᄃᆞᆺ立 〈화엄04:23〉

나: 若 陂澤乙 見 當願衆生 疾ㅣ 諸ᄀᆞ 佛矣 一味{之}ᄂᆡ 法乙 悟ᄂᆞᆫᄃᆞᆺ立 〈화엄05:15〉

다: 經乙 諷誦ᄂᆞᆯᄃᆞᆨᄀᆞ 時十ᄀᆞ 當願衆生 佛矣 說ᄒᆞᄆᆞᄀᆞ 所ᄃᆞᆯ十 順ᄂᆡᄉᆞᄃᆞᆯᄉᆞᄒᆞ 摠持ᄂᆞᆯᄉᆞᄆᆞ 忘尸 〈화엄08:03〉

라: 佛矣 相好乙 讚ᄂᆞᆫ白ᄃᆞᆨᄀᆞㅣ十ᄀᆞ 〈화엄08:12〉

예문 (9)와 (10)은 35(ㆍ)의 해독을 위한 것이다. (10)의 예들은 자토석독구결에 보이는 것으로 '佛'의 뒤에 '矣'가 붙어 있는 것들이다. 이들 예는 모두 『화엄경』에 나오는 것으로 (9)의 35(ㆍ)를 왜 '矣'로 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11]

(11) 가. A: 依一切智[41(ㆍ),34(ㅣ)]見法[23(-)]不動[32(ㆍ),35(ㆍ),33(ㆍ),41(ㆍㆍ),51(ㆍ)]〈주본화엄22, 18:20〉

B: 一切智乙 依ᄃᆞᆯ 法ᄅᆞᆺ 動ᄆᆞᆨᄀᆞ 不矣ᄀᆞᄉᆞᆫ乙 見ᄀᆞᆫ//一切 智를 의지하여 법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며

나. A: 無法[25(ㆍ)]中[53(ㆍ)]安立一切法[41(ㆍ), 11(/)]而[33(ㆍ)]不相違[32(ㆍ),35(ㆍ),22(ㅣ),25(ㅣ)]甚微細智 〈주본화엄31, 14:18〉

B: 無法ᄂᆞᆫ 中(ᄃᆞᆯ)十 一切 法乙 安立(ᄂᆞᆫ)ᄂᆞᆫᄀᆞᆷᄉᆞ而ᄀᆞ 相違(ᄂᆞᆫ)ᄆᆞᆨᄀᆞ 不矣X숨ᄂᆞᆫ 甚微細智(ᄉᆞ)//無法의 가운데 一切法을 安立하나 서로 어긋나지 않는 甚微細智이니

다. A: 具足菩薩[44(ㆍ)]福[32(-)]智[32(-),25(ㆍ)]助道[41(ㆍ),43(-)]

11) 『화엄경소』에서는 같은 상황에서 佛의 뒤에 'ᄉᆞ' 대신에 'ᄆᆞ'가 온다.

普[24(ㅣ)]益衆生[41(・),13(-)]而[45(・)]恒[24(ㅣ)]不匱[32(・),35(・),22(ㅣ),51(.・)] 〈주본화엄34, 01:11-12〉

B: 菩薩尸 福人 智人七 助道乙 具足(ㅅ)ゐ下 普ㅣ 衆生乙 益xム 而ᄆ 恒ㅣ 匱(ㅅ)口ㄱ 不矢Xゐ分//菩薩의 福과 智의 助道를 具足하시어 널리 衆生을 利益되게 하되 항상 다함이 없으시며

라. A: 業[23(-)]不失[32(・),35(・),33(・),41(・・)]故 〈주본화엄57, 03:17〉

B: 業ㄹ 失(ㅅ)口ㄱ 不矢ㄱ入乙 知(尸入ᄆ) 故(ㅣ)//業이 잃어지지 않는 것을 아는 까닭이다.

(12) 가. 能支 法ㄹ 永ㄴ 滅ㅅ口ㄱ 不矢ヒㄱ入乙 知ヒ干分 〈화엄11:15〉

나. 若 能 法ㄹ 永ㄴ 滅ㅅ口ㄱ 不矢ヒㄱ入(乙?) 知ヒ尸入ㄱ 則得ㅋ亦 辯才 〈화엄11:16〉

다. 成就ㅅナ今ㅣ{而}ㄱ 彼 微塵ㄱ 亦ㅅㄱ 增ㅅ口ㄱ 不矢ㄱ乙 {於}一ㄱㄹ十 普ㅣ 難思七 刹乙 現ㅎ 〈화엄15:08-09〉

(11)과 (12)는 이용(2003가)에서 예외적으로 보아 언급(각주 3))만 하고 지나갔던 것을, 점토석독구결에서도 관련된 예가 나타나 좀 더 확대된 시각에서 다루게 된 예들이다.[12] 먼저 (12)는 자토석독구결의 예로 석독구결의 부정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피부정어에 동사 어간인 '滅ㅅ-'와 '增ㅅ-'가 오므로 '-尸 不多-'이 예상되는데 실제로는 '-口ㄱ 不矢-'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언뜻 '-ㅎ{可}七ㅅ-'와 더불어 석독구결에서 부정을 명사문 부정과 동

12) 안대현(2008)에 자토석독구결의 '-口ㄱ 不矢-'에 해당되는 점토석독구결의 예가 잘 정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32(・)의 정체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논증이 잘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口ㄱ 不矢-'으로 해독되는 점토석독구결의 예에 대해서는 안대현(2008)을 참고하기 바란다.

사문 부정으로 구분하는 데 반례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를 고려한다면, 이 현상은 명사문 부정과 동사문 부정을 나누는 데 대한 반례로 처리하기가 어렵다. 논의상의 편의를 위해 '-ㅁㄱ'이 들어 있는 부정법은 '-ㅁㄱ 不矣-'로, 그렇지 않은 것은 '-ㄱ 不矣-'로 구분하기로 한다.

첫째, '-ㅁㄱ-'의 분석 여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ㅁ-'를 독립된 것으로 보아 선어말어미로 파악하는 방법과 '-ㅁㄱ' 전체를 하나의 통합형 어미로 보는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자로 보는 것이 좋다. '-ㅁ-'를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아 '-ㅁㄱ'이 하나인 것으로 파악하게 되면 연결어미 '-ㅁㄱ'과 구별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니와[13] '-ㅁㄱ'이 어떤 문법 기능을 가지는지도 설명하기 어렵다. 반면에 '-ㅁ-'를 독립된 것으로 보게 되면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데 '-ㅁ-'를 선어말어미로 보게 되면 '-ㅁㄱ 不矣' 부정은 피부정어가 '-ㄱ'으로 끝나는 부정법으로는 유일하게 선어말어미를 가진 예가 된다. 이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ㅁㄱ 不矣-' 부정법의 '-ㄱ'이 '-ㄱ 不矣-'의 '-ㄱ'과 다른 기능을 가졌기 때문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동사문 부정에 나타나는 '-ㅣ'과 명사문 부정에 나타나는 '-ㄱ'은 부정문에만 쓰이는 형태인 반면에 '-ㅁㄱ 不矣-'에 나타나는 '-ㄱ'은 명사화소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11(가, 라)와 12(가, 나)처럼 '-ㅁㄱ 不矣-' 부정에서 볼 수 있는 주어적 속격이 '-ㄱ 不矣-' 부정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현상을 현대어의 장형 부정과 관련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 구종남(1995: 11-12)에서는 "명사화에서는 내포문의 주어가 주어적 속격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지' 구문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지'를 명사화소로 보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지'는 명사화소가 아니라

13) 연결어미 'ㅁㄱ'에 대해서는 황선엽2002: 171-178)을 참조할 수 있다.

서술어를 뒤의 '-ᄒᆞ-'와 연결시키는 장치 정도로 보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것은 '-ㅁㄱ 不矣-'와 '-ㄱ 不矣-'의 구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석독구결에 적용한다면 '-ㅁㄱ 不矣-'의 '-ㄱ'은 명사화소, '-ㄱ 不矣-'의 '-ㄱ'은 부정 보문소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ㅁㄱ 不矣'에서만 '-ㄱ'과 선어말어미의 결합을 보이는 것은 '-ㄱ'의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까지 부정문에 나타나는 '-ㄱ'과 '-尸'에 대해서는 동명사어미로만 뭉뚱그리고 그 정확한 정체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지 않았다. 다만 명시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현대국어의 장형부정문에 나타나는 '-지'처럼 부정 보문소로 기능한다는 데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그것은 동사문 부정과 명사문 부정이라는 용어에 대한 일반적인 동의와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동사가 '-尸'과 결합한 뒤에 '不多'을 취하는 현상을 동사문 부정이라고 할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尸'을 명사화소로 본다면 동사가 '不多'을 취하는 것도 명사문 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정사와 같이 나타나는 '-ㄱ'과 '-尸'을 명사화소로 보게 되면 동사와 형용사라는 제한적 분포를 가지는 까닭을 설명할 방법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ㅁㄱ 不矣-'를 제외한 부정법에서 부정소와 같이 나타나는 '-ㄱ'과 '-尸'에 대해서는 명사화소로 보기가 어렵다. 반면에 '-ㅁㄱ 不矣-'의 부정법에서 나타나는 '-ㄱ'에 대해서는 명사화소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ㅁㄱ'에 뒤에 명사가 부정될 때 쓰이는 '不矣'가 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 A: 非有[35(・),=51(・)]非無[35(・),25(・・)]修無自性[45(一)]故
〈주본화엄57, 07:15-16〉
B: 有 非矣(ㅐ)分 無 非矣ㅌㄷ 修(ㅐナㅣ) 自性 無x入ㅠ{故}(ㅈ)
C: 있음 아니며 없음 아닌 닦음이다. 自性이 없는 까닭이다.

(13)은 '有'와 '無'를 각각 체언으로 보고 '非矣'에 의해서 부정하는 예이다. 『화엄경』에서도 『유가사지론』과 마찬가지로 명사 부정 형식은 '不矣'와 '非矣' 두 가지로 실현된다.

(14) 가. A: 亦[33(・)]非一切聲聞[11(・)]獨覺[11(・)]世間[11(・),13(/),23(-)]善根[45(・)]所能[35(・)]傾動[23(ㅣ),14(・.),35(・),55(.・)] 〈주본화엄36, 12:15-16〉

B: 亦(ㅅ)ㄱ 一切 聲聞ㅣ 獨覺ㅣ 世間ㅣㅅ仝ㄹ 善根ㅁ 能矣 傾動(ㅅ)ㅣxㅁ 所 非矣ナㅣ//또한 一切 聲聞이니 獨覺이니 世間이니 하는 이의 선근으로 능히 傾動할 수 있는 바 아니다.

나. A: 如非世間[25(・)]行[35(・),25(・・)]如善根亦尒迴向遠離一切世間[25(・)]行法[41(・),53(/^)] 〈진본화엄20 06:16-06:17〉

B: 世間七 行 非矣x七 如(乙ㅅㅁ) 如(支) 善根 亦(ㅋ) 尒(X) 一切 世間七 行法乙 遠離x十 迴向(ㅅ分)//세간의 행이 아닌 眞如와 마찬가지로 善根 역시 그러하여, 일체 세간의 행법을 멀리 떠나는 데에 회향하며

(14가)와 (14나)는 각각 '所'를 핵으로 하는 명사구와 명사 '行'이 부정되고 있는 예이다. (14가)는 주본화엄경의 예이고 (14나)는 진본화엄경의 예이다. 이들 예는 모두 명사부정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명사부정문과 관련된 예는 이 밖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자토구결과 관련하여 점토구결에서는 '未矣'와 '非ㅣ矣'에 의한 부정 형식을 찾을 수 없다. '未矣'는 자토구결에서 『유가사지론』에 한 번 나오는 예이었다. '非ㅣ矣'는 화엄경에 한 번 나왔다. 한때는 '不ㅣ矣'와 관련짓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화엄경』에서 '不能' 뒤에 'ㅣ矣'가 현토되어 나온 것을 '不' 뒤에 바로 현토된 것으로 잘못 보아 생긴 오류였다.

3.2. 동사문 부정

동사문 부정 형식과 관련하여 점토구결에서는 단형부정 형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자료상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점토구결 당시에 단형부정 형식이 존재하지 않았다고는 보기 어렵다. 앞으로 점토구결 자료의 발견이 좀더 이루어진다면 단형부정 형식이 발견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은 장형부정의 예이다. 이와 관련하여 단순부정을 먼저 다루기로 한다.

(15) A: 若彼物主[=22~32(・)]於彼取者[23(・),44(・)]而[43(・)]不捨與[15~25(-),34(₩)]是[34(・)]名[54(・)]不捨[53(・),35(・)] 〈유가08 11:17-18〉

B: 若 彼 物主ㅐ {於}彼 取者ㅋ十 而ㅠ 捨與(ㄴ)尸 不(多)ノ乛 乙 是乙 名下 不捨ㅗ(ㄴ)ㅋ//그 物主가 그 가지는 자에게 捨與하지 않은 것을 이를 일컬어 不捨라고 하고,

(15)는 동사 '捨與'에 '尸'에 대응되는 15~25(-)가 결합한 뒤에 '不'이 온 예이다. 이런 경우에 자토 『유가사지론』에서는 不에 '多'이 현토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점토 『유가사지론』에는 '多'이 현토되지 않는다. 자토 『유가사지론』에 의거하여 '多'을 보충하는 것이 현재 점토 『유가사지론』 해독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반면에 화엄경에는 '多'이 현토된 예가 보인다.

(16) 가. A: 神力足不離一佛刹[41(・),24(・),11(/)]往一切佛刹[53(・)]故 〈주본화엄57, 09:21-22〉

B: 神力足(ㅐナㅣ) 一 佛刹乙 離(尸) 不多(ㄴ)ナ仝ミ 一切佛刹十 往(尸入ㅠ){故}(ミ)//神力足이다. 한 佛刹을 떠

나지 않고 모든 佛刹에 가는 까닭이며

나. A: 佛子菩薩摩訶薩[=24(ㅣ)]不離欲界[41(·),24(·),11(/)]入色界[11(·)]無色界[11(·),13(/)]{32(\),45(-),14(/)?}禪定[11(·)]解脫[11(·)]及[25(·)]諸[33(·)]三昧[11(·)?,13(/),53(ㅣ),52(·)]亦[33(·)]不因此[41(·),43(·),34(ㅣ)]而[45(·)]受彼[53(ㅣ),44(·)?,24(·),14(:),41(··),지시선]{23(ㅣ)}生[41(·ㅣ)]{51(/)}是爲第一{25(··)?}莊嚴[25(·)?]{32(·)}道[11(·),51(·)]{21(ㅣ)} 〈주본화엄57, 08:02-04〉

B: 佛子(ᄌᆞ) 菩薩摩訶薩ㅣ 欲界乙 離支(尸) 不多(ㄴ)ᄒᆞ令ㅣ 色界ㅣ 無色界ㅣㄴ令(七) 禪定ㅣ 解脫ㅣ 及七 諸ㄱ 三昧ㅣㄴ令ㅣㅓ十 入ᄀᆞ 亦ㄱ 此乙 {因}ᄋᆞᄋᆞ 而ㅁ 彼ㅋᆞ十 生ㄴ尸入乙 受尸 不多ㄴ尸入乙 是(乙) {爲}第一 莊嚴七 道ㅣ(ㄴ)ᄀᆞ//佛子여 菩薩摩訶薩이 欲界를 벗어나지 않았으나 色界니 無色界니 하는 것의 禪定이니 解脫이니 (및) 모든 三昧니 하는 것에 들어가며 또한 이것을 因 하여 저기 태어남을 받지도 않는 것을, 이것을 第一의 莊嚴道라고 한다.

(16가)의 '刹'을 [41(·),24(·),11(/)]에 점토가 달려 있다. 이 점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다. 이들 중에서 먼저 41(·)은 '乙'에 대응되고, 11(/)은 연결어미로 쓰이는 'ᄒᆞ令ㅣ'에 대응된다. 그러면 24(·)만이 남는다. 이 24(·)는 동사문 부정에 쓰이는 '多'로 보는 것이 좋다. 다만 이 예에서는 '尸'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토석독구결의 현토 양상과 비교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 자토석독구결에서는 "忘 不多ㄴᄀᆞ ㄴᄒᆞ七ㅣ〈금광09:15-18〉"처럼 동사가 피부정어인 경우에 '尸'이 안 달리는 예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16나)를 통해 『주본화엄경』의 예에서는

피부정어인 '受'에 '-尸'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尸 不多-'로 실현되는 부정문에서 '多'은 유가사지론 계통이냐 화엄경 계통이냐에 따라 다른 표기 양상을 보인다. 자토구결의 경우에는 이 '多'이 유가사지론 계통에서는 대개 표기되지만 화엄경 계통에서는 거의 표기되지 않는다. 반면 점토구결의 경우에는 '多'에 해당되는 점토가 『유가사지론』 계통에서는 현토되지 않지만 『화엄경』 계통에서는 현토된다. 이처럼 상이한 결과는 부정법의 차이에 따른 것이 아니라 표기법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장형부정 중 능력부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7) 가. A: 令於善行[44(・)]不隨所[15~25(-),32~42(・),24(・),21(.・)]欲[+15~25(-),34(・),21(・),지시선(/)]故[41(・)]名[54(・)]爲縛[53(・),+55(・.)] 〈유가08 07:06〉

B: {於}善行十 欲ノ尸 所乙 隨ノ(レ)尸 不ハ(レ){令}刂X 故ム名下 {爲}縛ㅗx分//善行에 대해서 바라는 바를 따라 하지 못하게 하니, 그러므로 일컬어 縛이라고 하며

나. A: 又非聖財所生樂[33(・)]不能引發[2자합부-역독선]後世[42(・)]聖非聖財[34(・),32~42(・),35(/)]聖財所生樂[33(・)]能[55(・)]引發[2자합부-역독선]後世聖非聖財[34(・),55(・)] 〈유가05 02:23-03:03〉

B: 又 非聖財所生樂ㄱ 後世七 聖非聖財乙 引發(尸) 能 不ハレㄱ乙 聖財所生樂ㄱ 能分 後世(七) 聖非聖財乙 引發(レ)分//또 非聖財所生樂은 後世의 聖非聖財를 引發하지 못하거늘, 聖財所生樂은 能히 後世 聖非聖財를 引發하며

(18) 가. 復次[23(・)]三界有情[23(・)]所依[42(・)]之身[33(・)]當[32~42(・)]云何[53(・)]觀[+51(・.)?,15(・.)?]謂如毒熱癰[11(・),51(/),지시선(₩)]瘡[+51(・.)]重所隨[33~43(・)]故[43(・),53(・)] 〈유가05 05:08-09〉

나. 等隨觀執[22(・)]爲斫[24(・),35(・)]爲上[24(・),35(・)]勝妙第[22~32(・),35(・),+53(/),경계선,삐침선(42,₩)]一[지시선(/)]唯[32~42(・)]用[역독선]分別染汙慧[34(・),24(・)]爲體[24(・),54~55(.・)]〈유가08 03:1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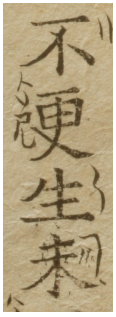
이 예문에서는 먼저 '不隨所'에 15~25(-)가 현토된 것을 볼 수 있다. 15~25(-)는 '-尸'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32~42(・)를 볼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자토구결에는 부사 '唯ㅅ, 必ㅅ, 當ㅅ'의 말음에 'ㅅ'가 현토되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18)은 'ㅅ'가 기대되는 자리에 32~42(・)가 오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14] 그렇다면 (17)에 제시된 32~42(・) 역시도 'ㅅ'에 대응시킬 수 있게 된다. 결국 32~42(・)는 不ㅅ의 ㅅ를 현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들을 자토구결에 대응시키면 '-尸 不ㅅ-'이 되는데 이는 자토구결의 능력부정의 실현 양상과 같다.

이와 관련하여 자토구결에 나타난 '-ㄱ 不ㅅ-'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 一切 境界ㅋ十 微細智礙ㅐㅅㅏㄱㄲ 無明ㅐ 因{爲}ㅐ尸入乙ㅅ分 未來ㅋ十 是 礙ㅐ 更ㅋ 生ㄱ 不(人/ㅅ)ㅅ尸乙 更ㅋ 生 不ㅅ令ㅐ 令七 智乙 得尸 未(ㅅ/人)ㅅㅏㄱㄲ 無明ㅐ 因{爲}ㅐ尸入乙ㅅ矛 亚 是乙 如來地七 障ㅗノ矛ナㄱㅐㅣ 〈금광03 08:08-09〉//一切境界에 微細 智礙가 있는 것도 無明이 因이 되며, 未來에, 이 礙가 다시 나지 못하거늘, 다시 나지 못하게 하는 智를 얻지 못함도 無明이 因이 되는 것이라 이를 如來地의 障이라 한다.

(19)의 밑줄 친 '生ㄱ 不(人/ㅅ)ㅅ尸乙'은 기존 자토구결 지식으로는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이다. '不ㅅ-' 부정문이라 부정화소로 '-尸'이 기대되는데도 불구하고 '-ㄱ'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해

14)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장경준(2005: 95-96), 서민욱(2005:46-48)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림 2

당 부분의 점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광명경』의 해당 부분에는 '-ㅁ'이나 '-ㄱ'이 기대되는 자리에 점토가 찍히지 않았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ㅁ'이 기대되는 자리에 '-ㄱ'이 온 까닭에 대해 나름의 추론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不'에 현토된 'ㅅ'가 우리의 관심을 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체를 보았을 때 이 구결자는 'ㅅ'보다는 'ㅅ'에 가깝기 때문이다. 문맥이 고려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ㅅ'로 읽는 것이 맞다. 또한 '未'에 현토된 'ㅅ'도 다소 'ㅅ' 모양에 가깝다. 그리고 '生'에 현토된 'ㄱ'에도 미심쩍은 점이 발견된다. 그것은 'ㄱ'을 현토한 '未'字 근처가 전체적으로 다소 지저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ㄱ'의 오른쪽 우상변 안에 들어 있는 '//' 표시는 인위적일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不'에서 '未'에 이르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지럽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다음으로 이 문장의 해석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如來地의 장애가 생기는 원인을 無明에서 찾고 있다. 그런데 如來地의 장애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一切 境界에 있는 微細 智礙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이 장애가 나지 못하게 하는 智를 얻지 못하는 장애이다. 이들은 모두 無明이 원인이 되어 생긴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智波羅蜜을 行向하는 것, 즉 수행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래에 이 장애가 나지 못하게 하는 智를 얻지 못하는 장애'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보면, 장애가 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의 '不'은 능력부정으로 쓰인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 이것은 앞뒤의 내용을 보면 더 확실해진다. 우리가 다루는 이 문장 이전에는 十地의 장애가 나온다. 그리고 이 문장 다음에는 이런 장애들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수행을 제시하고 있다.[15] 따라서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논의하는 이 '不'에 'ㅅ'가 현토되었다고 보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生ㄱ 不(ㅅ/ㅅ)ᄂᆞᄆᆞᄌᆞ' 역시도 능력부정으로 보는 것이 좋다. 문맥으로 볼 때 수행을 하면 장애가 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시 '不ㅅ' 구문에 결합한 'ㄱ'의 문제로 돌아가기로 한다. 먼저 여기서 'ㄱ'은 잘못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한 것이다. 첫째, 점토석독구결에서도 능력부정의 '不ㅅ'이 '-ㄱ'을 취한 예를 찾을 수가 없다. 둘째, 이 예는 자토석독구결 전체를 아울러 단지 한번 나오는 예외이다. 셋째, 이 부분의 자토가 전반적으로 다소 혼란스러운 면을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예가 나타났는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단순히 자토 현토자가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이 부분의 구결자들이 다소 어지러운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석을 하면서 현토를 했다면 'ㅅ'를 'ㅅ'로 표기하는 일이 생기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의 가능성은 다른 현토본을 보면서 베끼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ㅅ'를 'ㅅ'로 옮기는 정도의 실수를 설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방법으로는 'ᄆᆞ'을 'ㄱ'으로 현토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 베끼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에도 'ᄆᆞ'과 'ㄱ'의 차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된다. 그것은 점토 구결에서 자토 구결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다. 마침 『합부금광명경』의 해당 부분에 점토가 찍혀 있지를 않다. 즉, '15~25(-)' 위치에 점토가 찍혀 있지 않아서 옮겨 적는 과정에서 'ᄆᆞ'이 들어갈 자리에 'ㄱ'

15) 이 문장의 해석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菩薩十地에 대해 설명〈금광03 05:23-06:22〉, 이 十地 각각의 이름에 대한 풀이〈금광03 06:22-07:15〉, 十障 및 如來地障을 설명〈금광03 07:16-08:10〉, 菩薩十地를 十波羅蜜의 수행과 연결〈금광03 08:10-08:16〉으로 이루어져 있다.

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마지막 가능성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들 가능성 중에 하나만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 수도 있지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 다만 마지막 가능성을 통하여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합부금광명경』의 경우에는 자토보다는 점토가 먼저 있었고 이 점토를 토대로 자토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향후 더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음은 각각 '未ㅅ'과 '未ㅐ'의 예이다.

(20) 가. A: 未[15(・)]制魔軍[34(・),32~42(・),22(・)]而[43(・)]有受用[+15~25(-),22~23(・),31(-)]是故[43(・)]彼樂[33(・)]為非真實[15(・₩),11~21(-),24(・),35(・)]亦不能制所有[33(/)]魔[35(/)]事[34(・),32~42(・),35(・),지시선(/)]〈유가0505:04-06〉

B: 魔軍乙 制 未ㅅ(ㄴ)ㄱ 而ㅁ 受用ノ尸 {有}ㅐx皿 是 故ㅁ 彼 樂ㄱ 真實ノ仝x 非(矢ㅐ)ㄷ {為}ㄱ ㅋ 亦 有ㄴㄱ 所(七) 魔事乙 制 能 不ㅅ(ㄴ)ㅋㄴㄱ乙//魔軍을 제압하지 못하여 受用함이 있으므로, 이런 까닭으로 그 즐거움은 眞實하지 않은 것으로 삼고 또한 있는 바 魔事를 능히 제압할 수 없고 하거늘

나. A: 他所攝51(・)]者[23~33(・・)]謂即未適他[34(・)?,22~32(・),22(・)] 爲三守護[23(・)] 之所守護[+15~25(-),34(・),32~42(・),15~25(/)≠25(/),55(・)]〈유가08 12:22-23〉

B: 他所攝(ㅐ)ㅣ{者}x入ㄱ 謂 即 他乙 適(ㄴ尸) 未ㅐ(ㄴ)ㄱ 三守護ㄹ{之} 守護ノ尸 所乙 爲ㅅx矢分//他所攝이라 하는 것은, 즉 곧 남을 適하지 못하여 세 守護의 守護하는 바를 받는 것이며,

(20가)는 '未ㅅ'의 예이고 (18나)는 '未ㅢ'의 예이다.[16] 둘 다 능력부정으로 쓰이고 있다. 이는 자토구결에서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기능이나 현토 양상을 보았을 때, '未ㅅ'나 '不ㅅ'은 같은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남풍현(1976)에서는 '안득' 정도로 읽었을 것으로 보았다.

다음에서는 화엄경의 능력부정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21) A: 佛子[34(ㅣ)]譬[15(·)]如金師[24(ㅣ)]鍊治眞金[41(·),23(ㅣ)]作莊嚴具[41(·),23(ㅣ),33(·)-중복선,53(·)]餘[33(·)]所{32(·)}有[33(·),25(·)]金[23(-)]皆[25(·)]不能及[25(·),14(·)≠14(:),22(-),24(ㅣ)≠24(:),35(·)],31(·),55(/)] 〈주본화엄36, 04:18-19〉

B: 佛子ㅈ 譬ㅅㄱ 金師ㅢ 眞金乙 鍊治(ㄴ)ㅈ 莊嚴具乙 作(ㄴ)ㅈ ㄱㅣㅓㄱ 餘ㄱ 有ㄱ 所ㄴ 金ㄹ 皆ㄴ 及ㄴ尸 不X 能ㅢ矣ㄴ 弖 如xㅣ//불자여, 비유하면 금 다루는 이가 眞金을 단련하여 莊嚴具를 만들면 남은, 있는 바의 금이 모두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21)에서 밑줄 친 X는 22(-)에 현토되는 것으로 자토구결 '不〈ㄴ〉'의 '〈ㄴ〉'와 관련을 지어 논의할 필요가 있다.[17] 논의에 앞서 자토구결에

16) '未'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능력부정의 경우에 '未'에는 'ㅢ'가 붙은 예를 찾을 수 있지만 '不'에는 'ㅢ'가 붙은 예를 찾을 수 없다. 이것은 '未'에 'ㅢ'를 붙여서 읽을 수 있는 어떤 부정소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17) 자토석독구결에 〈ㄴ〉가 쓰인 예들을 모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諸ㄱ 如來ㅢ 悉ㅈ 共ㄴ 倆揚ㄴㅁ乃 盡ㅈ尸 不〈ㄴ〉能ㅢ矣ㄴㅁㅁ乙ㅎㄴㅣ 〈화엄09:07〉
智慧 自在ㄴㅈ 思議尸 不〈ㄴ〉ㄴ尸ㅁ 說法ㄴ 言辭 {有}礙尸 無ㅁ 〈화엄15:05〉
若ㄴ 有ナㅣ 出離ㄴ 法乙 識ㄴ尸 不〈ㄴ〉ㄴㅁ 〈화엄18:14〉
解脫ㄴㅈ ホ 誼慣乙 離支ㄴ尸入乙 求尸 不〈ㄴ〉ㄴナ弖ㅈ 〈화엄18:14〉
{此}ㅢ 一切 法乙 了知尸 不〈ㄴ〉能ㅢ矣ㄴトㄱㅢ四 我ㄱ 當ㅅ 發意ㄴㅈ ホ

서 '能ㅐ矣'와 결합함이 없이 '不〈ノ〉'만 쓰여 능력부정의 기능을 하고 있는 예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들 예는 화엄경 계통에서 4회 보인다. 그렇다면 기존에 '不能ㅐ矣'를 하나로 보고 이것을 화엄경 계통 자료의 능력부정으로 보았던 처리 방식은 문제의 여지를 지니게 된다. 〈ノ〉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화엄경 계통의 능력부정은 不〈ノ〉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18]

이제 자토구결의 〈ノ〉에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22(-)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22(-)가 자토구결의 토에 대응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부터 우리의 논의를 시작해 보기로 한다. 화엄경 계통의 점토구결에 관한 지식으로는 22(-)는 대응되는 자토구결의 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화엄경 계통 자료에 나오는 선토가 한자의 사각형 안에 쓰인 경우에 그 선토가 자토구결의 자토에 대응되지 않는다고 볼 예들이 없었다는 데서 기인한다. 물론 이것 자체도 현재의 점토구결 해독이 불완전하다는 데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22(-)에 대응되는 자토가 있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ノ〉'는 자토인가? 논리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듯하다. 그러나 〈ノ〉가 자토가 되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점이 걸린다. 다음의 세 가지를 고려하면 자토구결의 〈ノ〉를 구결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첫째, 앞에서 본 것처럼 〈ノ〉의 위치가 한자에 너무 가깝다.

〈화소08:20-21〉

更ミ 衆生乙 饒益尸 不〈ノ〉能ㅐ矣ノ丰ナ刀ㅐ皿 〈화소11:13〉

賢聖七 物七 非矣分 臭穢ンミホ 潔尸 不〈ノ〉ンカ 骨節ラ 相持ノ刀ㅐ分 〈화소16:07-08〉

衆刀 魔ミ 外道ミノ今ラ 懷尸 不〈ノ〉能ㅐ矣ノ尸 所ㅐ分 〈화소23:13〉

18) '不〈ノ〉'만으로 능력부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能ㅐ矣'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현재로서는 부사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 될 것이다. '能ㅐ矣'의 부사 용법이 『화엄경소』에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입된 위치가 질서정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통의 자토와 비교하면 그 크기가 매우 작은 편이다. 사실은 크기도 일정하지가 않다. 셋째, 전혀 다른 기능을 하는 'ノ'와 겹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ノ〉'를 자토로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ノ〉를 점토구결의 22(-)의 대응되는 자토로 상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그럼 〈ノ〉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 가능한 방법은 〈ノ〉가 자토는 아니지만 능력부정과 관련하여 일종의 기능을 가진 무엇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서 '무엇'이 부정과 관련된 기능을 가지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지만 역독점을 생각하면 이해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석독구결에서는 자토만이 기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 '무엇'의 정체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점토구결의 해독과 관련해서는 자토구결의 〈ノ〉가 지닌 기능에 유념한다면 이것을 무시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점토구결 해독 시에는 22(-)에 대응되는 구결토인지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ノ〉를 표시해 반영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22) 가. A: 如摩尼寶[25(・)]淸淨光輪[24(ㅣ)]能[24(・)]放光明[41(・),13(ㅣ),33(・)]非諸[33(・)]餘[33(・)]寶[23(-)]之所能及[25(・),14(・.),34(ㅣ),35(・),51(・)]風雨等[12(:)]緣[24(ㅣ)]悉[34(ㅣ)]不能壞[44(・),22(-),35(・),14(・.),24(・)?,55(₩)#55(・)] 〈주본화엄36, 04:21-22〉

B: 摩尼寶七 淸淨光輪ㅣ 能支 光明乙 放x令ㄱ 諸ㄱ 餘ㄱ 寶ㅋ{之} 能 及七x尸 所ㅋ 非矢分 風雨 等ㄴㄱ 緣ㅣ 悉ㅋ 壞尸 不〈ノ〉能(ㅣ)矢x尸 如支xㅣ//마니 보배의 청정한 光輪이 능히 광명을 뻗는 것은 모든 다른 보배의 능히 미칠 바 아니며 풍우 등의 緣이 다 무너뜨릴 수 없음과 같다.

나. A: 如劫數說[53(-)]不可[=25(・),교정부호]盡[12(:)]菩薩[44(・)]

集助道[41(・),14(・)]亦[42(₩)]一切世間[24(ㅣ)]說[53(-)≠53(・-)]不能盡[34(ㅣ),44(・),22(-),35(・),31(・・),51(・)]〈주본화엄57, 07:04-05〉

B: 劫數(ㅐ) 說(ㄴ)x乃 盡(ㅎ)可七ㄴㄱ 不(矢ㄱ) {如(支) 菩薩尸 助道乙 集尸 亦刀 一切 世間ㅐ 說(ㄴ)x乃 盡ㅋ尸 不〈ノ〉能(ㅐ)矢(ㄴ)口乙(ㅋ)分//劫數가 說하나 다할 수 없는 것처럼 보살이 助道를 모음(을) 또 一切 세상 사람이 說하나 다할 수 없으며

다. A: 明淨意客塵[23(-)]不能染著[22(-),35(・),31(・・),45(ㅜ)]故〈주본화엄57, 15:11〉

B: 明淨意(ㅐナㅣ) 客塵ㅋ 能 染著(ㄴ尸) 不〈ノ〉能(ㅐ)矢ノ令ㄱ入ㅆ{故}(ㅈ)//明淨意이다. 客塵이 능히 물들일 수 없는 까닭이다.

(23) A: 如无恚[25(・・)]如善根亦尒迴向一切衆生[41(・)]一切魔[52(ㅜ)]業[45(・)]所不能動[35(・),14(・),35(./),35(₩・),13(・₩),53(・.)]〈진본화엄20 07:04-06〉

B: 无恚x七 如(乙ㄴ尸) 如(支) 善根 亦(ㅋ) 尒(X) 一切 衆生乙 一切 魔ㅋ 業ㅆ 動(尸) 不能(ㅐ)矢(ノ)尸 所X个ㅐx令x十 迴向(ㄴ分)//성냄이 없는 如와 같이 善根도 그러하여, 一切 衆生으로 하여금 一切 魔의 業으로 능히 움직일 수 없는 바이게 하는 데에 회향하며,

(22)는 『주본화엄경』에 나오는 不能 구문의 다른 예들이다. (22가, 나, 다)에서는 모두 22(-)와 35(・)를 확인할 수 있다. (22가, 나)에서는 44(・)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다. (22다)에서는 44(・)가 보이지 않지만 『주본화엄경』의 일반적 현토 경향에 의거하여 44(・)의 현토가 생략된 것으로 보고, 해독할 때 보충하여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23)은 『진본화엄경』의 예이다. 이런 예들을 통해서 『진본화엄경』과 『주본화엄경』의 부정법이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진본화엄경』에는

22(-)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짚어둘 필요가 있을 듯하다.

4. 석독구결 부정법의 국어사적 의의와 남은 문제

앞에서 점토석독구결의 부정법이 실현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얻어진 점토구결 부정문의 양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명사문 부정 형식(=단순부정):
명사(구)+不矣(非矣/未矣)
형용사+-ㄱ +不矣(非矣/未矣)

동사문 부정 형식:
장형부정: 단순부정 동사+-尸+不多(非多)
능력부정 유가사지론 계통: 동사+-尸+不八(未八), 未刂
화엄경 계통 : 동사+-尸+不〈丿〉能刂矣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 자토구결에서 보이는 동사문 부정의 단형 부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빼고는 대체로 자토와 점토의 부정문 실현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자토와 점토 석독구결의 부정법은 국어사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점토 석독구결의 연구 이전에는 자토석독구결의 부정법이 다소 예외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불안한 면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러한 문제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구결의 부정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몇 가지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먼저 이용(2003가)에서 잘못 보았던 것에 대한 반성을 하기로 한다. 첫째, 화엄경 계통의 능력부정에서 不의 옆에 쓰이는 〈丿〉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점토구결의 현토 양상을

감안했을 때 22(-)로 반영된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ㅅ〉를 자토구결자로 확정짓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둘째, 『금광명경』에 나오는 '-ㄱ 不ㅅ'에 관한 것이다. 이 예는 자토구결 연구 당시 원문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도 하였거니와 부정법에 대한 이해도 지금보다 떨어져 있던 상태였기에 단순부정으로 보았다. 그러나 점토구결에 대한 조사를 통해 '-ㄱ'은 점토구결에 대한 전사과정에서 잘못 현토된 것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19] 셋째, '-ㅁㄱ 不矣-'에 관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피부정어에 동사가 결합되어도 명사문 부정이 나타나는데 이는 '-ㅁㄱ'의 '-ㄴ'이 명사화소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그럼 이제부터 점토구결과 자토구결의 부정문에 대한 연구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먼저 구결 자료가 보이는 부정문 형식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사실 자토구결만을 대상으로 구결 자료의 부정문을 다루었을 때는 15세기국어의 부정문과 그 형식이 다르다는 점이 국어사에서 자토구결의 부정문이 이질적으로 보이는 데 기여했을 것임은 부인하기 어렵다.[20] 그러나 부정법 양상에 대한 연구가 점토석독구결까지 확대되고 그 전모가 어느 정도 밝혀짐에 따라 자토석독구결의 부정법 양상이 꽤 오랫동안 한국어에서 유지되어 왔던 것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석독구결의 부정법 형식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15세기 부정법 형식으로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를 못했다. 이것은 향후 과제로 남긴다.

다음으로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명사문 부정과 동사문 부정이 나뉘

19) 그러나 이들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앞으로 좀 더 고민을 요한다. 현재 가진 자료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 남풍현(1976)에서는 자토구결의 부정법 양상이 공시·통시적인 자취를 남기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히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자토구결의 부정법 양상이 국어사 속에서 다소 예외적으로 보였던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으로 본다.

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대강을 남풍현(1976)에서 밝힌 바가 있기에 새삼 강조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 중 하나는 동사문 부정에서 단순부정과 능력부정이 또한 나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대국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 당시의 부정문에도 단순부정과 능력부정의 구별이 있다는 사실은 국어사에서 부정법의 연속성과 관련하여 눈여겨볼 만하다.

형용사가 명사문 부정을 취한다는 사실은 자토구결과 점토구결 자료의 확인을 통해서 드러난 고려시대 부정법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것은 한국어의 형용사가 명사보다는 동사에 가깝고 따라서 형용사는 동사문 부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다소 예외적이다. 한국어의 형용사가 동사에 가깝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다.[21] 심지어는 한국어에서 종래의 형용사라고 주장했던 것은 사실은 동사이고 관형사로 알려졌던 것이 진정한 의미의 형용사에 해당한다는 의견까지도 제시된 바가 있다.[22] 이러한 한국어에서 형용사가 동사와 같은 면을 보이기보다는 명사와 같은 면을 보이는 현상에 대한 발견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국어사적으로도 충분히 논의의 가치가 있다. 앞으로 부정법 밖에도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예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언어보편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논의의 여지를 남긴다. Dixon(2004)에 따르면 언어보편적으로 볼 때 형용사가 자동사 서술어처럼 행동하는 경우에는 부정법의 양상이 동사를 따르고 계사 보어의 위치에서 나타날 때에는 부정법의 양상이 명사를 따르는 것이 상식이다. 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한국어의 형용사도 형용사가 자동사 서술어처럼 행동을 한다. 그런데도 한국어에서 부정법과 형용사가 보여주는 관계는 이러한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흥미롭다.

---

21) 석독구결의 부정법과 형용사의 관련에 대해서는 이용(2010)에서 자세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22) 이런 주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목정수(2003)을 참고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알타이어에 속하는 언어들에서 형용사가 보이는 양상이 동사보다는 명사에 가깝다는 사실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와 알타이어의 동계설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는 있지만 거기에는 넘어야 할 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알타이어의 형용사는 명사에 가까운데 한국어의 형용사는 동사에 매우 가깝다는 사실이다. 혹시 석독구결 시기의 형용사 부정문이 보여주는 양상이 한국어의 형용사가 지닌 명사성을 간직한 예가 된다면, 한국어의 알타이어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알타이어 계통에 속하는 언어들에 대한 비교학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參考文獻

高永根(1989), 『國語形態論硏究』, 서울大學校出版部.
구종남(1995), 「장형 부정문에서 '-지'의 통사적 기능」, 『국어국문학』 115, pp. 1-25.
김동식(1980), 「현대국어의 부정법의 연구」, 『국어연구』 42, 국어연구회.
김동식(1990), 「부정법」,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동아출판사), pp. 452~466.
김정아(2001), 「'이-'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통시적 고찰」, 『국어학』 37, pp. 309~336.
南豊鉉(1976), 「國語 否定法의 發達」, 『문법연구』 3, pp. 55~81.
南豊鉉(1996a), 「高麗時代 釋讀口訣 'ᄇᆞ/ㄹ'에 대한 考察」, 『口訣硏究』 1, pp. 11~44.
南豊鉉(1996b), 「『金光明經』 卷三 釋讀口訣에 나타난 ᄇᆞ의 用法에 대하여」, 『이기문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신구문화사), pp.228~251.
南豊鉉(1998),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動名詞語尾 '-ㄱ/ㄴ'에 대한 考察」, 『국어학』 28, pp. 1~48.

南豊鉉(1999),『『瑜伽師地論』 釋讀口訣의 硏究』, 태학사.
목정수(2003),『한국어 문법론』, 월인.
박진호(1997),「차자표기 자료에 대한 통사론적 검토」,『새국어생활』 7-4, 국립국어연구원.
박진호(1998),「고대국어문법」,『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국립국어연구원), pp. 121~205.
서민욱(2005),『瑜伽師地論』 卷5·8의 點吐口訣 硏究』,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정수(1994),『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송석중(1974),「동의성 -언어학자의 Frankenstein-」,『국어학』 2, pp. 65~82.
송석중(1977),「'부정의 양상'의 부정적 양상」,『국어학』 5, pp. 45~100.
안대현(2008),「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해독(2)」,『국어학』 51, pp. 109-136.
엄정호(1987),「장형 부정문에 나타나는 '-지'에 대하여」,『국어학』 16, pp. 645~660.
이경우(1983),「부정소 '아니'와 '못'의 의미」,『국어교육』 44·45, 국어교육연구회.
이기용(1979),「두 가지 부정문의 동의성 여부에 대하여」,『국어학』 8, pp.59~94.
이 용(2003가),「釋讀口訣에 나타난 否定詞의 機能에 대하여」,『구결연구』 11, pp.249-273.
이 용(2003나),「전기 중세국어에 나타난 '-ㅣ'의 성격」,『어문연구』 118, 한국어문연구회, pp.71-96.
이 용(2010),「전기중세국어 형용사의 부정법이 보이는 명사적 속성」,『대동어문연구』 69, 2010년 3월 발간 예정.
이승재(1995),「동명사 어미의 역사적 변화」,『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임홍빈(1973),「부정의 양상」,『논문집』 5, 서울대 교양과정부, pp. 115~140.
임홍빈(1978),「부정법 논의와 국어의 현실」,『국어학』 6, pp. 185~206.
장경준(2005),『『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의 해독 방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윤희(2001), 「중세국어 '-암/엄 직ᄒᆞ-'의 문법사」, 『형태론』 3.1, pp. 1~21.
장윤희(2002),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태학사.
조은주(2001),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부정법 연구」, 『구결연구』 7, pp. 135~165.
조은주(2002), 「前期 中世國語의 否定法 硏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nward, J. (2001), "Parts of speech", Haspelmath, M. et al.(eds.), *Language Typology and Language Univerals: An International Handbook*,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Dixon, R. M. W. (1994), "Adjectives," Asher, R. E. et al.(eds.),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Pergamon Press.
Dixon, R. M. W. (2004), "Adjective Classes in Typological Perspective", Dixon, R. M. W. and Alexandra Y. Aikhenvald. et al.(eds.), *Adjective Classes*, Oxford University Press.
Jespersen, Otto (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George Allen & Unwin.

[132-773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2동 삼익아파트]
E-mail: leeyonghu@hanmail.net
접수일자: 2009. 12. 15.
심사일자: 2010. 01. 11.
게재결정: 2010. 01. 31.

Grammatical negation in *jeomto seokdok kugyol* texts of the Koryo period

Lee, Yo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grammatical negation in *jeomto seokdok kugyol* 點吐釋讀口訣 texts, based on results of research on *jato seokdok kugyol* 字吐釋讀口訣. A comparison of the two reveals that the negative forms in *jeomto seokdok kugyol* texts are essentially the same as those in *jato seokdok kugyol*.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this study, the opportunity has arisen to correct previous errors and propose new interpretations of grammatical negation in *seokdok kugyol* texts. First, in the case of the sequence '-ㄱ 不多', which is the single exception in *seokdok kugyol*, the possibility of an error in transcription is raised. Second, another possible interpretation of the ability negation form in the *Huayanjing* 華嚴經 lineage texts is proposed. Lee Yong (2003) understood this form to be '不能刂矣', but in this paper it is interpreted as '不〈丿〉能刂矣' because of the marking in the position 22(-) in *jeomto seokdok kugyol* texts. Third, 'ㄱ' in the 'verb + -ㅁㄱ 不矣' construction was regarded as exceptional in Lee Yong (2003), but in this paper it is explained as a possible nominalizer.

Keywords: *jeomto seokdok kugyol*, *jato seokdok kugyol*, negation, *andʌl*(不多), *andi*(不矣), *andʌk*(不ㅅ)